

대림 제3주일  
자 선 의 날

기도서 217면 (B해)  
제1독서 : 이 사 61, 1-2a, 10-11  
제2독서 : 1 데살 5, 16-24  
복 음 : 요 한 1, 6-8, 19-28

# 순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 관 리 국  
인쇄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들

정 양 현 신부

벌써 대림 3주일이 되었다. 이제 한 주일만 더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성탄절이 찾아온다. 성서를 보면 메시야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잘했던 분들이 나온다. 그분들은 늘 제1독서에서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뻐다」고 한 이사야 예언자이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이다. 이분들의 공통된 점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서 항상 기뻐했고 늘 기도했으며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으셨던 분들이다. 특히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증언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빛을 증언하려고 왔을 따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보다 하느님을 내세웠으며, 후에 자기에게 닥친 모든 고통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바쳤다. 그럼 우리는 점점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두말할 나위없이 회개하여 잘 사는 길이다. 그리고 회개한 표시로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다.

흔히들 X-mas 때가 되면 나름대로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고 나선다. 인정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 요즈음에 참 좋은 일이며, 하느님도 기뻐하실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뜻으로 자선을 이웃에게 베풀지만 우리가 그 대한 만큼 그렇게 기쁨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행한 자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자선은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만 사랑은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오늘을 자선의 날로 정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가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자량이 있다면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으로 뭉쳐져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베풀 자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물질에 실어야 할 것이다. 물론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현대의 이기주의와 무관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희망이 끊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가능할 것이다. 더우기 오늘 복음의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다면 문체 없을 것 같다. 「주여! 어서 빨리 오소서!」  
〈전동 보좌신부〉



## 성금거두는 계절에 생각나는 것

연말이 다치면 갖가지 탈선 소식들이 우리의 컷션을 때린다. 특히 근년에는 젊은이들의 지능적인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기도 한다. 그중의 하나는 불우이웃 돕기를 빙자한 것으로, 1일잡집을 열어 밤세우며 향락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냥 넘기기에겐 참으로 마음이 개운치가 않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한테서 배운 솜씨인가? 이것은 분명히 어른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아이들은 어른의 흉내를 내면서 자란다. 여자아이는 얼마처럼 꾸며보기도 하고, 엄마가 하는 일이나 말투를 흉내내기도 한다. 남자아이는 마차가지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함께 책을 펴들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쉽게 배운다. 그래서 문제다.

그런데다가 요즈음 젊은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마저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너무나 현실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모두는 어른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특히 지도층 인사에게서 배운 것이다. 불우이웃돕기를 빙자한 못된짓도 성금 빼먹은 대학교 총장에게서 배웠는지 모른다. 성금이라면 그저 누구도 군소리가 없으니, 이것도 어른들에게 배웠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한다. 1년이면 몇차례씩 거두어가는 성금, 이제는 보사부장관도 아예 신문에 비싼 세금으로 광고 내가며 호소하는 성금, 시골학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 해가며 거두어가는 체육성금, 이 모두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세금처럼 할당액이 정해진 성금, 다시 생각해야 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금은 마음으로 내어야 하지, 성을 내면서 내어서는 안된다.

## 순정이 산책



# 남마 선교사로 파견되면서



# 탕자 돌아왔습니다

十찬미예수

경애하올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예수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여러가지 일로 무  
척 바쁘실 여러분께 먼 길을 떠나면서 작별인사를 올립  
니다.

저희 세 사람은 이번에 큰 소명을 받들고 남마로 선교  
사업을 위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이 소  
위 선교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무척 거리가 먼  
이야기인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막상 선교사로서 여려  
분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복  
음선포를 위해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곳을 놓  
아두고 신자들에 비해 사제수가 절대부족한 지역으로 파  
견된다는 점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온 세계 교회가 한 가족임을 생각할 때 교구의  
선교사 파견은 보다 새롭고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  
이 확실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파견되는 나라에는 그  
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으면서 사제 양성 사업의 부진으로  
많은 성당에 많은 신자들이 목자없이 헤매고 있다는 사  
실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목자없이 시작한 교회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잘 살려 사제양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이  
제 그 결실의 하나로 한국의 첫 방인 자치교구로서의 긍  
지를 가지고 남마에 선교사제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제가 될 때 이미 모든 것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정든 모든 분들과 모든 것들을 떠나 언어와 풍습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  
면서 일말의 불안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의 신앙이 그만큼 미약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  
희들의 형제자매되시는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들이 먼 이역 하늘  
아래서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말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파견하시는 분은 물론 하느님 아버지이시겠지  
만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주교님을 비롯한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모두가 저희를 파견하시  
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자주 소식 올릴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줄  
이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을 통  
해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에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1984년 대림절에  
정 승현, 김 윤섭, 방 의성 신부 올림

이 모 니 카

삶의 모습이 하나 둘 여명 속에 생동하는 새벽녘입니  
다. 여명처럼 거하시는 천주, 아버지시여!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자재이시며, 지존자이신 야훼 하느님!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엿드립니다.

지난 3년, 많은 방황과 불순종으로 신부님과 수녀님을  
비롯한 여러 형제 자매들께 얼마나 많은 걱정과 아픔을  
드렸는지요. 세상의 헛된 것만을 추구해오던 제 영혼이  
었습니다. 그로 인해 와장창 깨져 상처받고 몸부림치며  
허덕거렸습니다. 보잘 것 없이 무능력하여, 오만스럽고  
이기적이며 감각적인 것에 마음을 더욱 앞세웠던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야훼 하느님! 순간들의 상처로 절망스럽고 침울한 제  
영혼에 꿰뚫히게 썩은 쓰레기로 가득한 제 영혼에 희망  
이시며 치유자이시기를 비오며,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며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이기를 비는 마음  
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오셔서 진리의 말씀안에 머물게  
하소서. 변함없이 천상의 기쁨과 평화 속에서 성령의 열  
매를 먹으며 살고픈 소망을 드립니다.

받아 주소서. 토박 토박,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의 가  
르침대로 이 간난이 최선을 다해 배우렵니다. 제 힘으로  
는 부족하오니 도와 주소서. 세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희  
망을 가져 본답니다.

능력주시는 자, 사랑이시고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아버  
지 하느님! 돌아온 탕자처럼 맞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림없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소서.

오, 주여! 너무도 부족하기에 아니, 꿈이 많기에 차  
라리, 어색한 표현만을 그려낼 듯한 이 필을 거들까 합니  
다.

중심을 보시는 주여, 뜻대로 살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가톨릭센타 5기 영세자)

## 교회간행물을 읽고 계십니까?

교회간행물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  
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리 손으로 키우고 발전시  
켜야 합니다.

- ☆한가정에 교회간행물 한가지씩을!
- ☆에비자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교회간행물을 통  
해 선교활동을!
- ☆성탄 선물로 간행물 정기구독 신청을!

##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결혼, 회갑, 등, 각종문화행  
사, 비디오 특수촬영 전문

대우전자 비디오 특약점

## 영진 비디오 취급품목

대우전자 T·V, V. T. R, 자  
중성서, 교육용, 프로레이프,  
판매 및 교환

채석자(글라라)

2-4094 전주 백화점 옆

## 한 일 옷 감

- 훈수(회갑, 수의) 옷감
- 명주, 목화솜이불 전문

### 교우분들께는 영기봉사

전주 구 남부배차장(영신당향약방 옆)

조성순(테라사)

TEL. 2-7203



### 선교사 파견에 즈음하여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드디어 전주교구에서도 외국에 선교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를 마감하는 이 때에 이는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는 12월 28일 우리는 중앙성당에서 정 승현, 김 윤섭, 방 의성 세 분 신부님을 성대한 환송미사로 남미에 파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전파되고 전 인류구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물론 시초에 믿음의 도입이 선교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된 것이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로 발전하기까지 선교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구만 해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가셨고 10여 기의 외국 선교사 신부님들의 묘를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사 2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교하는 교회의 본 자세를 갖출 때이며 전 세계교회에 이바지하는 한국교회가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957년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피폐이 도움”이라는 회칙을 발표하시며 사제수가 극도로 부족한 나라에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1980년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성직자 성성훈령을 통하여 같은 호소를 전 세계 교회에 되풀이 하셨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성하께서는 성직자 수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법교회는 여러분이 선교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시고 “한국으로부터 선교사를 맞을 다른 나라들을 위해” 한국 성직자의 봉사가 희망을 안겨준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떠나시는 신부님들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정신을 잘 이해하시고 이 어려운 봉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님들께서는 전주교구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이 어려운 길을 떠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뒷받침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되는 길입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께서 봉쇄수도원의 깊은 담장 속에 살면서 전교지방에는 한번도 가본 일조차 없었지만 기도와 희생으로 선교사를 도우심으로 “모교사업의 수호자”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전주교구 첫 선교사 신부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기도와 희생 그리고 너그러운 봉헌으로 신부님들을 뒷받침 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 요심이 (593) 김병오

여대생주행선에 관련된 경찰관을 철저히 조사하여...

임종처벌해야 한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성명서를 발표!

12개 여성단체가 처벌해달라고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냈고...

내가 담당 검사라면 골치깨나 썩시겠다..

### 일신 기업 석재

\*건축석재 가공 및 시공  
\*상석·석판  
(대리석, 기타석재)  
대표 김중의(야고버)  
(함열천주교회 사도회장)  
전화 공장 (0653) 5000  
자택 (0653) 0049

※ 전북의료협동조합지정병원

### 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비뇨기과  
원장 전문의 **최昌基** (루가)  
부설: **임상병리검사실**  
임상병리사 **임윤자** (글라라)  
☎ ① 1719·② 0616 (상담전화)  
(구역전 오거리·끝달로 동편 2층)

### □ 축! 김제 신풍 새 성당 낙성

200주년 기념성당으로 신축해온 김제 신풍 성전 축성 및 봉헌예식이 다음과 같이 거행된다.

그동안 김제본당(주임-오 현택신부, 사도회장-김 치덕) 모든 신자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새본당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일 시 : 12월 16일(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김제 신풍 성당

□마춤·대여□  
**신부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비디오촬영·페백의상·신부부케·야외촬영  
판통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⑥ 6951  
정 인 기(논지도)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데레사(금순)  
☎ : ① 9206 · ② 5289

**성 가 약 국**  
전주시 서완산동 1가 216  
☎ 2-5835  
권 성 윤(요 셉)  
소 수 자(벨라벳다)  
공무원 아파트  
홍여리고개  
신주공아파트  
**성가약국**



1. 중·고지도자 연합회 창립총회: 16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센타 회의실, 회비-2천원
2. 12월 교미시음 회의: 16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각 꾸리아 및 직속Pr. 간부 전원  
(※ 1985년 레지오 수첩 판매: 전동성당 사무실, 300원)
3. 마니피캣 합창단 정기총회: 17일 오후 5시30분, 장소-센타내 교육관
4. 성령쇄신 가르침 봉사자 피정: 18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이리 글라라 수녀원  
참석범위-가르침 봉사자를 하고 싶은 분
5. 교구 선교사 파견미사: 28일 오전 11시, 장소-중앙성당  
※ 병원에 입원중이신 서 정수 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김인협

1. 판공성사 못보신 분: 18일~19일 오전 10시~12시·오후 7시~9시(면담·성사)
  2. 병자봉성제: 18일
  3. 성모회: 금일 공식미사 후
  4. 성탄반 영세식: 23일 공식미사 중
  5. 성탄꽃 봉헌: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6. 재야 자정미사: 금일동 성당에서, 31일 밤 12시
  7. 축! 영명: 나춘성(스페파노) 26일, 축하식-23일 공식미사 후,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31,217원 교무금: 1,773,100원  
감사헌금: 김창원-2만원·박마리아-5천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이성우  
사도 회장 이홍재

1. 본당 판공일정: 17일-인후7구역~12구역, 18일-우아동 전체, 19일-인후아파트 전체, 20일-우아아파트 전체, 22일-적장인, 오전 9시~12시·오후 2시~6시
2.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오후 6시, 참석 바람
3. 가족대할 섬가결연대회: 24일 저녁 7시부터 희망가정은 2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람
4. 영화상영: 오늘 저녁미사 후 폐북-미사전례에 관한 영화, 많은 관람 바람
5. 독지가를 찾읍니다: 성탄 전야행사에 시상상품을 기증해 주실 분은 2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
6.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7. 교무금을 완납합시다: 아직 교무금을 못내신 분은 속히 완납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요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은 「자선의 날」: 성탄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봉헌 배가 바랍니다
  2. 오늘의 모임: 성모회·반석회
  3. 성탄영세자 종합교리: 18일~21일 저녁 7시30분, 유치원에서, 면접-오후 2시·8시30분
  4. 영세식: 23일 오후 2시
  5. 금주회의: 19일 저녁 7시30분-선교위원회·만사회 20일 저녁 7시30분-전례위원회·교육위원회, 21일 저녁 7시30분-봉사위원회·재경위원회
  6. 판공미필자는 18일~21일 저녁미사 전후에 받으세요
  7. 진북유치원 원아모집(12월중): 협조 바랍니다
  8. 금주 본당청소: 반석회·가리마쓰회-22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509,970원 교무금: 1,534,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병자봉성제: 18일 오전 9시부터
  2. 영세자 집중교리: 17일~22일 오전 10시~11시
  3. 영세식: 22일 오후 2시30분
  4. 성탄 섬가결연: 17일~22일 오후 2시~3시
  5. 자선의 날: 오늘 특별헌금 있습니다
  6. 온풍기 세금: 김복주-2만원, 익명-2만원
  7. 교무금 완납 바랍니다
  8. 금주 성당청소: 월-사라하오션 어머니 토-순결하신 어머니 차주 성당청소: 월-다우의 탑, 토-셋벨
  9.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②김성원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조성호 ②강기연
- 지난주 봉헌금: 135,180원 교무금: 392,950원

(서학동)

신부 ⑥8307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판공일정: 18일-10반·5반·3반, 20일-2반, 21일-1반·중고생 전체, 22일-손님신부 초래(저녁 8시부터), 23일-주일학교 합동
  3. 성전 보수공사 헌금: 정정순-5천원, 이순복·박옥남-각 2천원, 김정석-2만원, 익명-3만원
  4. 유아세례 및 병자성사: 매일 세례주 목요일 미리신청
  5. 다음주 전례: 해설-김낙완·김은경, 독서-①박경환 ②박중순, 기도-요나회
- 지난주 봉헌금: 320,090원 교무금: 696,000원

(윤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자선헌금: 오늘 특별헌금
  2. 성모회: 공식미사 후
  3. 사도회 전체회의: 공식미사 후(신심단체장, 구역장)
  4. 부녀회 임원개편: 회장-황안나, 부회장-유정미, 총무-오안젤라, 회계-정비비안나, 서기-오엘레나
  5. 판공일정: 시간-오후 2시~5시, 오후 7시~9시  
18일: 금암-1·2구역, 진북1동-오후, 84년영세자-저녁, 19일: 서진1~5구역·어은골, 20일: 진북2동-1~5구역·태평동, 21일: 진북2동 6~10구역·동양아파트  
22일: 중·고·대학생, 23일: 국민학생, 24일: 기타(초청 고백신부-저녁 8시30분~11시)
  6.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강 삼·성종자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김남곤·김영희
  7. 감사헌금: 이엘리사벳-3만원, 김관수-2만원(애령회에)
- 지난주 봉헌금: 229,290원 교무금: 636,5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정양현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교미시음: 오늘 오후 2시
  3. 섬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4. 200주년 기념사업 헌금: 15만원-방준철, 5만원-이덕순·김공규, 3만원-문재현·이순자·이길섭, 2만원-유연실·유기남, 1만5천원-송인순, 1만원-박결암·이성준·강봉자·김경이·안말레·김용원·반순남·이승준·한금순·유옥례, 5천원-오정원
  5. 추계 판공일정: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6시  
18일-남노송동, 19일-중앙동·경원동·다가동, 20일-기타동, ※ 시간연수
  6.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5~6세 남·여어린이, 수시접수
  7. 글로리아 섬가대 성탄 섬가결연중: 매일 저녁미사후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최병배 ②김동연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안득수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지난주 봉헌금: 752,530원 교무금: 958,0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성탄영세자 특별교리: 17일~22일, 저녁 7시30분~9시
  2. 구역 판공성사: 18일-광진·서부 거성, 19일-주공-2단지, 20일-상개리공소
  3. 초청신부 고해성사: 오늘 오전 9시~12시30분, 오후 7시~9시
  4. 사목회의·성모회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45,270원 교무금: 922,000원